

KBS2 <다큐 3일>의 7월 20일 방영분에 대한 의견서

동물자유연대는 귀사가 2014년 7월 20일KBS2에서 방영한<다큐 3일>‘바다를 부탁해 -아쿠아리움에서 생긴 일’편의 전반에 걸쳐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과 동물의 복지를 심각하게 위해할 수 있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업체 및 수족관 산업의 행태를 사실과는 다르게 미화하는 등 책임감 없는 방송 내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와 답변서를 요청합니다.

1. <다큐 3일>‘바다를 부탁해’편은 벨루가 수입경로 등 방영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출연자의 말만 빌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영하였습니다.

본 편에 촬영 협조를 한 한화 아쿠아플라넷의직원이 전시중인 벨루가를“러시아 고래연구소에서 데리고 온 고아들”이라고 표현하거나, “상어에게 공격을 당해서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고아가 된 벨루가들을 한군데에 모아놔서 돌봐주고 있다가 저희가 데리고 온 거”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제29회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정기총회에서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해당 동물들에 대해 발표한 ‘흰고래 연구 및 사육관리’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해당 동물들은 2011년 여름 6-7월에 포획된 개체로, 러시아 가두리에서 약 10개월의 순치과정을 거친 후 2012년 4월에 국내로 이송된 것입니다. 또한,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동물들을 유입했다고 밝힌 ‘러시아 태평양수산연구센터(Pacific Scientific Research Fisheries Cetner(TINRO))’는 러시아 정부 기관으로,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주장하는 ‘고아가 된’ 벨루가를 구조, 보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 확인한 결과, 전시중인 벨루가는“러시아 태평양수산연구센터’에서 수입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측에 해당 동물의 포획 경위와 포획한 기관명, 구입 절차를 정확히 밝히고, 방송에서 주장한 ‘도태 직전 벨루가의 구조’ 사실 여부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 본 편의 전반에 걸쳐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된 야생생물을 전시하는 산업 행태를 지나치게 미화하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업체와 산업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야생개체 포획과 전시는 포획 자체의 비인도성은 물론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한 야생개체수 감소,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외화 수입의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000마리 이상의 야생 벨루가를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총 29종의 벨루가 중 야생개체수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종은 4종에 불과하다는 점, 야생포획 외에도 사냥,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기후 변화, 선박과의 충돌 때문에 15만 마리 이상의 개체들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더욱 국제사회의 비난

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해양수산부는 어린 벨루가 18마리에 대한 수입 신청을 반려한 바 있으며, 그 이유로 벨루가 포획이 야생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수입을 허가할 경우 러시아의 고래목 포획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 수입 신청된 19마리 중 5마리가 1살 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편은 포획과 전시의 본질적 이유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전혀 없이 한화 아쿠아플라넷을 ‘3만 4천 마리 해양생물들의 새로운 고향’이라고 지칭하고, “(자연에 있는 생물을 좁은 공간에서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의 임무고 역할”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영해 벨루가, 바이칼물범 등 야생에서 포획된 개체를 전시하는 행태가 해당 개체들을 보호하고, 해양생물을 보존하는 일인 것처럼 미화해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3.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점을 이용하여 수족관 산업을 확대하고, 구조생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긍정적으로 미화해 방송하였습니다.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은 정치망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해양동물을 그대로 방류할 경우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를 구조하여 치료 후 방류하도록 한 데 그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방류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관람용 수조에 전시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정기적으로 낚싯배에 동승해 상업가치가 낮아진 물고기들을 필요에 따라 일부 수확해 수조에 보관하다 살아남은 개체를 전시하는 행태를 “구조”라고 표현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내는 일”, “구조해서 더 나은 환경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미화하는 내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방영하였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2013년 3월에,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2012년 8월에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2012년 9월 25일 제주도 신산리 정치망에서 구조한 바다거북은 구조한지 640일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쿠아리움 일반 관람실에 전시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단체가 윤명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바다거북의 구조 이유는 외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외상의 치료에 2년이 소요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혹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아직 처치 중이라고 할지라도 따로 격리되어 집중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람용으로 전시되는 것은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해양동물의 구조는 최종 목적이 방류가 되어야 하며, 치료 후 영구 전시를 목적으로 한 포획은 구조라고 볼 수 없으며, 현행 제도를 악용해 전시 생물을 확보하는 행위로, 방송에서 이를 미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기업의 전시를 위한 무분별한 구조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4.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닌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무책임한 전시행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영하였습니다.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에서 개체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격리사육은 사회적 동물인 고래류의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의 격리사육은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 및 식욕부진 등으로 인한 질병, 폐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편은 벨루가의 격리사육 장면에서 해당 업체의 직원이 “예도 여기가 좋은지 저쪽 문을 저희가 자주 열어줬는데 안 나가더라고요”라고 설명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격리사육이 해당 개체의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해당 개체를 위한 것처럼 보이도록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가 나서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사육면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있음에도 수족관의 역할에 대해 “최소한에 공간에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주고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해주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임무”라고 설명하는 등 활동반경이 넓은 야생생물에게 최소한의 공간만 제공하여 사육하는 무책임한 전시행태를 정당화하는 장면을 경각심 없이 그대로 방영하였습니다.

5. 관람객의 부적절한 관람태도를 부추기고, 동물을 다루는 사육사의 잘못된 행위를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관리인 것처럼 묘사하여 방영하였습니다.

본 편에서 관람객이 수조를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직원이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나 이름 부르기 등 소음을 유도하여 동물을 과도한 소음에 노출시키는 장면을 방영하여 부적절한 관람태도를 오히려 부추기는 내용을 책임의식 없이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수족관에서 동물을 관리할 시 체중측정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협조를 구하는 기본적인 훈련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이칼물범의 체중을 측정하는 장면에서 체중측정이 1달에 1번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직원이 빠져나가려고 바둥거리는 바이칼물범을 강제로 잡으려다 여러 차례 놓치고, 꼬리를 잡아 끌어 고무통에 넣는 등 동물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루는 장면이 마치 전문가에 의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본 단체는 위와 같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방영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바다를 부탁해’편에 대해 1. 벨루가 유입 경로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방영된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청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는 정정방송과 2. 방송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문제의식 없이 촬영에 협조한 업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영한 점에 있어서 동물자유연대가 본 의견서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